

지역 소식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지역 계획 2016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최윤환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대하여 말씀한다.



최윤환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질문. 장로님이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입니까?

최윤환 장로:

제가 가장 기쁜 순간은 첫째, 아내와 함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아내와 서로 대화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진리를 더 깨닫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승화되는 걸 느끼고 아주 큰 기쁨을 느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개종하고 교화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진정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할 때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교리와 성약 18:15~16)

온전히 개종한다는 것은 구도자나 비회원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미 개종하신 회원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 간증이 깊어지며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곁에서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숭고한 일 중 하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의로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그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때로 사랑하는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성과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최윤환 장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도자를 가르치는데 그가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의 발전 과정 자체가 큰 기쁨일 것입니다.

두 명의 구도자에게 침례를 주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던 한 회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구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그 구도자의 선택의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그들 중 누구라도 마음 속 작은 부분에서라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회원이 구도자들을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선교사는 사랑하는 구도자가 복음을 거절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여전히 실망을 경험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영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듯이, 주님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 우리 선교부에서는 구도자가 복음 공부 및 침례 권유를 거절할 때 "아니요(NO)"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기회(New Opportunity)"의 약자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복음에 가까워질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8편



10절에서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지금 거절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음의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개종하고 변화하는 것은 영원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다릅니까?

최윤희 장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할 때 느끼는 소소하고 세상적인 기쁨도 존재하지만, 영적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집의 아름다운 표면이라면, 영적인 기쁨은 그 집의 기반이 되는 단단한 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반석이 없다면 집의 아름다움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은 그 속성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외모와 복장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사치가 되지만, 영적인 기쁨은 더 많이 추구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숭고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근원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29편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 우리가 하는 현세적인 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일입니다.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앙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며, 맡은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름에 봉사할 때 도움을 주시듯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주십니다. 만약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모범과 사랑으로 직장 상사와 동료를 대하십시오. 복음 원리에 근거하여 일하면, 세상적인 신뢰와 성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그리고 교회의 부름을 행할 때뿐 아니라 우리는 직장 생활과 같은 일상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성도들은 각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윤희 장로: 주어진 환경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불평할 수도, 또는 감사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란, 고통을 겪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발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보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때, 온 인류의 고통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께 훈련받는 과정이다. 십일조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어려움 가운데 내리는 축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읽습니다.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백 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교리와 성약 78:19)

기뻐하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찾지 못하면 교회의 모든 것이 고행처럼 느껴지고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엘마는 경전에서,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은 너희가 느낄 때에, ...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엘마서 32:28) “기쁨을 [준다.]”라는 말이 영어 원문에는 “맛있다.”(be delicious to m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맛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맛있는지 잘 모르지만, 마음에 말씀을 심고 실천해보면 그것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면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





중독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다

“...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 화합하게 된 후에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라.”(니파이후서 10:24)

십대 시절에 나는 매일 외설물에 빠져들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싫어졌고, 가족과 교회,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태도가 싸늘해졌다. 외설물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혼자서 노력했지만, 외설물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 중독 상태에서 느끼는 쾌락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유혹에 굴복했다. 하지만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쾌락 대신 나 자신에 대해 더 나쁜 느낌이 밀려왔다.

중독된 내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의미 있는 관계를 결코 만들 수 없을 것 같았다.¹ 이런 이유로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멀리했고 혼자서 지냈다.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사탄이 얼마나 나를 세계 결박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으로만 변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²

이런 생활 방식을 따른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환경이 바뀐 것이다. 나는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 갔고, 인터넷에 잘 접속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설물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외설물을 볼 수 없어 답답했고, 쉽게 화를 내고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침대에 누워 있던 나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외설물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기를 꺼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러다 마침내 속죄의 권능을 통해 중독을 이겨내고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³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강하게 영을 느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나를 움아매고 있던 사탄의 사슬이 느슨해지고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원리들 때문에 다시 경전을 공부했고, 내 걱정거리에 대한 해답도 찾아 나갔다. 프로그램을 위해 열린 매주의 모임에서, 나는 나의 회복 상태를 평가했고 계속 노력할 힘과 용기를 재충전했다.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제공받았다. 경전을 공부하면 구주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각 단계에서 가르치는 복음 원리를 반복해서 공부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을 풍성하게 느꼈고,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속죄를 통해 도움을 구한 이후로 나는 훨씬 더

행복해졌다. 구주와, 그리고 가족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낀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끊임없는 인도를 느낀다. 내가 외설물 중독을 극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도록 한 결정은 내가 이제껏 내린 제일 좋은 결정이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

주

1. 필자 보충 설명: 음란물은 자극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과 다른 매우 극단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표현한다. 음란물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가정 생활과 결혼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차적 희생자가 된다.
2. 설명: 중독 행위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는 좀처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태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들켜지 않기 위해 행동을 축소하고 이를 숨기려 하지만 결국 자신과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중독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중독은 정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올바른 도움을 구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중독 회복 프로그램(2011). 1쪽 참조.
3. 설명: 가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독 회복 프로그램은 모두 12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단계마다 치유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중독 회복 프로그램(2011). 7~1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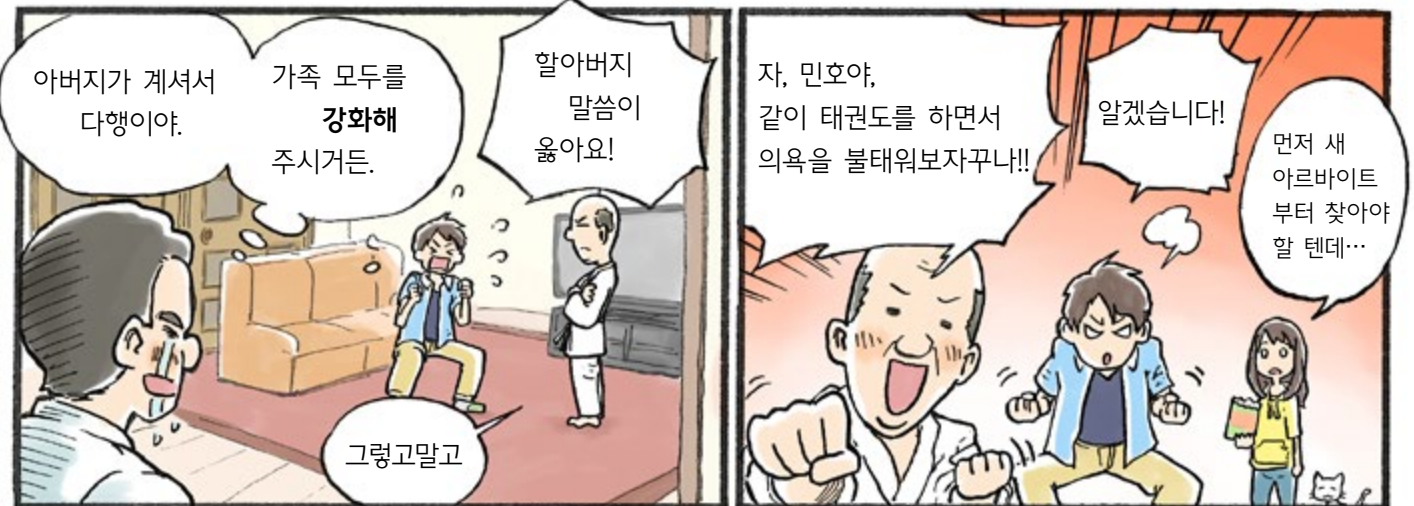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중독 회복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메일: koreaoffice@ldsfamilyservices.org
- 전화: 02) 2038-2549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팩스: 02) 2253-1393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6길 5 (우편번호 04585),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한국 사무소



“강화한다”

단풍잎 가족



서울 남 선교부—터너 회장 부부

서울 남 선교부 회장으로 로저 윌리엄 터너(Roger William Turner) 형제와 그의 아내인 테리 린 허스트 터너(Terri Lynn Hurst Turner) 자매가 부름받았다.

터너 회장은 1978~1979년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1979년 선교부를 이동하여 1980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어로 봉사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경기도 성남 지역의 임대 건물에서 회원들 몇 명과 했던 모임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회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은 경이롭게 변화하고 성장했으며, 회원 수도 증가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신앙과 힘이 커졌습니다.”

터너 회장은 오랜 기간 제약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1994~1996년 일관적으로 2년간 한국에 머물렀다.

“저와 제 아내는 이 부름을 받고 겸손해졌고,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주님께서는 부름을 준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Whom the Lord calls, the Lord qualifies.)’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한 뒤 터너 회장 부부는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생활해왔다. 터너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단, 고등 평의원, 감독, 지부 회장, 보이스카우트 단장 등으로 봉사했다. 터너 자매는 스테이크 청년 회장단, 세미나리 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터너 회장 부부 슬하에는 4남 1녀의 자녀와 7명의 손자녀가 있다. ■

대전 선교부—매드슨 회장 부부

대전 선교부 회장으로 존 매드슨(John Madsen) 형제와 그의 아내인 아네트 헤이몬드 매드슨(Annette Haymond Madsen) 자매가 부름받았다.

매드슨 형제는 1975년에 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서울에서 잠시 봉사했으나 곧 선교부가 분리되면서 부산 선교부로 이동하여 남은 기간 부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 한국과 인연이 깊다. 매드슨 회장 부부의 아들인 제임스 매드슨 형제도 대전 선교부 지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었다. 또한, 매드슨 회장은 스펜서 제이 팔머(Spencer J. Palmer) 형제와도 각별한 사이이다. 팔머 형제는 1965년 서울 선교부 회장으로 이후 서울 성전에서 봉사한 바 있다.

“부산에서 제 선교부 회장이셨던 한인상 회장님과 이 자매님의 모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귀환 후 팔머 형제님 밑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그들 부부는 저의 평생의 멘토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드슨 형제는 미 공군 소속 법조인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일본 도쿄에서 근무하던 중 선교부 회장 부름을 받았다.

“저와 아내는 몇 년 내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로 계획하긴 했었지만, 이번에 갑자기 부름이 와서 놀랐고, 이 특별한 기회에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준비하느라 복잡하고 정신없이 바빴지만, 직장을 관두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이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드슨 회장은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 지부 회장, 와드 선교 책임자 등으로 봉사했으며, 매드슨 자매는 지방부 초등회 회장, 와드 상호부조회 및 청년 회장, 세미나리 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매드슨 형제 부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만나 결혼했으며, 이들 슬하에는 4명의 자녀와 6명의 손자녀가 있다. ■

안양 스테이크, 신앙을 헌납하며



안양 스테이크 전경



토요일, 리본 커팅식



월요일, 가정의 밤



화요일, 가족 역사 사업



목요일, 안양 사회인 족구 대회



금요일, 농구 대회



토요일, 최선빈 형제 피아노 무료 교습 및 연주회



토요일, 문화의 밤 행사

안양 스테이크의 새로운 집회소가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안양 스테이크 센터이자 안양 와드의 집회소로 사용된다. 새로운 예배당의 완공을 기념하며, 지난 7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전·현직 안양 시장 및 시의원 등 지역 사회 지도자 20여 명이 화환과 축전 등을 통해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은 토요일 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환한 얼굴들을 보니 천국에 온 느낌”이라며, “이 신축을 기점으로, 이

사회에서 (후기 성도들이) 더욱 더 구원과 예수의 소명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호 전 안양 시장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크신 음성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라며 연단에서 축사를 나눴다. 일요일인 10일 저녁에는 헌납식이 열렸다. 헌납식의 연사로서 정동환 회장은, “이 아름다운 건물처럼, 우리의 내면도 아름답습니까?”라고 질문하며, 회원들이 순종과 봉사로서 자신의 신앙을 헌납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을 완성하도록 권유했다.

김일수 축복사는 “화합과 단합으로 사랑을 이룰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이라며 하나가 되자고 전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최윤환 장로는 헌납 기도에 앞서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재물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심하도록 권고했다. 그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납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헌납에서 비롯합니다.”라고 전했다. ■

권유한다—내가 만난 회원 선교사들

최근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한 회원이, 선교 사업 시절 보았던 회원 선교 사업의 모범에 대해 기고했다.

선교 사업 시절, 여러 와드 지부의 회원들의 모범을 통해, 어떻게 회원으로서 선교 사업을 할지에 대해 배웠다. 내가 경험한 회원 선교 사업의 모범에 대해 나누고 싶다.

감독 및 지부 회장

선교사와 회원이 함께 일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는 각 와드 지부의 감독 및 지부 회장이다. 선교사 지침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회원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쌓기 위한 출발점은 감독이다'라고 되어 있다.

내가 봉사하던 한 와드의 감독님은 선교 사업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지역으로 이동하자마자, 감독님은 나와 동반자에게 와드 선교 사업 목표와 기대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고,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감독님은 매일 시간을 정하여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했다. 매주 우리를 와드 평의회에 초대했고, 매주 한 번, 그분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30분 동안 선교 사업에 대해 논의하자고 권유했다.

우리가 만나는 구도자가 없을 때 감독님은 눈물을 흘렸고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을 위해 함께 금식할 것을 권유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의 결실을 주실 것이다'라는 신앙을 와드 회원들이 갖도록 독려했다. 선교사들과 회원들은 금세 가까워지고 서로를 신뢰했으며, 와드에는 선교

사업의 영이 함께 했다.

선교 책임자

물론경에 나오는 앰올레크는 엘마의 동반자가 되었으며, 앰몬아이하 현지인으로서 백성과 엘마 사이에서 연결 고리의 역할도 했다. 앰올레크처럼, 선교 책임자는 회원과 선교사 사이의 연결 고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교 사업 시절 와드 선교 책임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다. 새로운 지역에서 나와 동반자는 회원들과 서먹했고 그 지역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그 와드의 선교 책임자는 나와 동반자에게 회원 방문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또 전도를 하면 좋은 장소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었다. 모임에 비회원이나 나타나면,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재빨리 알려 주어, 비회원과 인사하고 우정을 쌓도록 도와주었다. 토론이 있을 때마다 회원이 함께하도록 조율해 주었다.

회원 개개인

선교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회원들도 많이 만났다. 어떤 독신 회원은 자신의 생일 파티나 식사 초대에 선교사와 친구들을 동시에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선교사와 비회원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 어떤 기혼 자매님은 특정 친구나 이웃을 정하여 1~2년 정도 기간을 잡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이 항상 개종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긍정적이 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회원들 또는 전임 선교사들이 무릎 꿇고서 주님께 선교 사업 기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로 간구한다면, 두

려움은 신앙과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찾아야 하며,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 그저 긍정적이 되십시오. 그러면 대화 상대방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당장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느낌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에 그들의 상황이 바뀌면, 그 결정도 바뀔지 모릅니다.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의지에 달려 있지만, 복음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4쪽.

회원 선교 사업은 다 준비된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소개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들은 회원으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고, 선교사가 이를 돕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은 회원 선교 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했다.

회원으로서 우리가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도자가 침례의 물가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그 구도자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방법이자,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교 사업을 위해 감독, 선교 책임자, 회원이 단합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신앙으로 단합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기적이 찾아 오리라는 것을 안다. ■

지역 회장단 장년 회원 영적 모임

지난 6월 26일,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지역 회장단 장년 회원
영적 모임'이 열렸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모든 장년
회원이 이 모임에 초대되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의
감리로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최윤희 장로, 지역
칠십인인 정태걸 장로, 구승훈 장로,
배동철 장로가 이 자리에 함께했다.

모임의 첫 번째 연사로서 최윤희
장로는, "오랜 세월 교회에서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한다"며, "봉사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이라고 전했다.

봉사 선교사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욱 자매, 복지 관련 봉사 선교사
이재훈 장로와 최남용 장로가 봉사를
시작한 계기와, 봉사하며 얻은 축복과

간증을 나누었다.
아내인 정근자
자매와 함께
봉사 중인
최남용 장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삶을 단순화하니 늘 성신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저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전했다.

관리 본부의 인사 담당자로서
봉사 선교사 업무를 돕고 있는 박경렬
형제가 봉사 선교사 지원과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브리핑을 전달했다. 성전
선교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중창을
발표한 뒤, 마지막 연사로서 와이팅
장로가 말씀했다.

와이팅 장로는 "나이가 함께 지혜가
오고, 기회가 오고, 젊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며
장년 회원들이 가진 힘과 지혜, 그리고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을
'한국 교회의 개척자 세대'로 지칭하며,
"교회가 계속해서 강화된 후, 많은
후손들이 뒤를 돌아보며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장년 회원들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이들이 보인
관심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참석자는 모임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집에 머물면서도,
가능한 시간만큼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8명 / 장로 1명



길설주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대전 선교부



김수진 자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대전 선교부



김지연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부산 선교부



남지윤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대전 선교부



박은애 자매
바운티폴센트럴
스테이크
모스힐 와드
대전 선교부



손강산 장로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대전 선교부



신가희 자매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워싱턴디시 북
선교부



윤미림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이세린 자매
아시아엔다하이츠
스테이크
한인 지부
아이다호 보이시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회장: 김영욱 형제(전임: 석동진 형제)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감독: 유영일 형제(전임: 정윤채 형제)

울산 지방부

경주 지부 회장: 이진석 형제(전임: 이준택 형제)